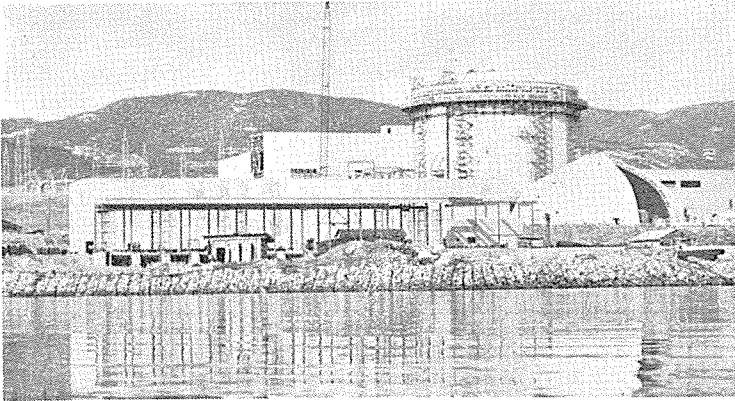


“에너지 自立기반 최우선과제”

全대통령 原電 3 호기 준공 致辭 月城 原電 3 호기完工...국내 첫加壓重水爐型



(月城원자력발전소(PHWR))

全斗煥대통령은 4월22일 『이렇다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代替에너지를 개발하고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에너지의 자립기반을 튼튼하게 넓혀나가는 일은 정부와 산업은 물론 모든 국민이 슬기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고 전제, 『이 과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에너지의 절약에 있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慶北 月城군 陽南면 羅兒리에서 있는 「發電설비 1천만 KW 돌파 및 原電 3 호기 준공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본격적인 원자력시대를 전개하는 오늘을 계기로 하여 기술진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건설의 국산화를 촉진하여 멀지

않아 우리의 힘으로 原子力을 이용, 개발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오늘날 에너

을 特定연구개발課題 확정

科技處 4백4개 과제에 4백43억원 지원

科學技術處는 금년도 특정연구개발과제로 반도체 및 컴퓨터, 정밀화학공업, 시스템산업등 9개분야에서 4백4개과제를 선정하고 정부부담 2백4억원, 기업부담 2백39억원등 총 4백4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 특정연구개발과제는 국가주도가 22건에 97억 6천만원, 기업주도 1백81건에 3백39억원, 목적기초연구과제가 2백1건에 6억5천7백만원이다.

분야별 연구과제와 투자규모는

지의 개발과 이용은 국민 생활은 물론 한나라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말하고 『이용대환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시대의 본격적인 전진을 가속시키는 디딤돌인 동시에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튼튼한 받침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月城原電 3 호기(시설용량 67만8천7백KW)는 韓電이 內資3천55억원과 外資5억9천5백만달러등 총공사비 6천4백28억원을 들여 착공된지 7년 3개월만에 완공된 것으로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가 개발한 국내최초의 加壓重水爐(PHWR)형이다.

이 발전소의 준공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는 1천만 KW를 돌파, 1천30만4천KW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서는 건설공사에 공이 큰 成樂正 전환전사장(現 한국중공업사장)에게 金塔 산업훈장을 수여하는등 關連有功者 20명에게 褒賞했다.

정밀화학공업이 82개 과제에 55억 8천8백만원, 기계공업이 59개 과제에 51억5천만원, 반도체 및 컴퓨터 67개과제에 44억5천2백만원, 생물공업 76개과제에 11억1천1백만원, 시스템산업이 9개과제 10억 8천5백만원, 소재공업이 42개과제 10억7천만원, 에너지 및 자원이용분야가 23개과제에 8억8천9백만원, 섬유 고분자공업이 28개과제 7억6천만원, 건설·환경·플랜트 엔지니어링분야가 18개과제에 3억원의 順이다.

科學기술綜合행정 電算시스템구축

科技處, 9개연구소에 데이터通信網설치

科學技術處는 증대하는 行政情報量과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정보시스템(MIS) 구축을 위한 行政電算化계획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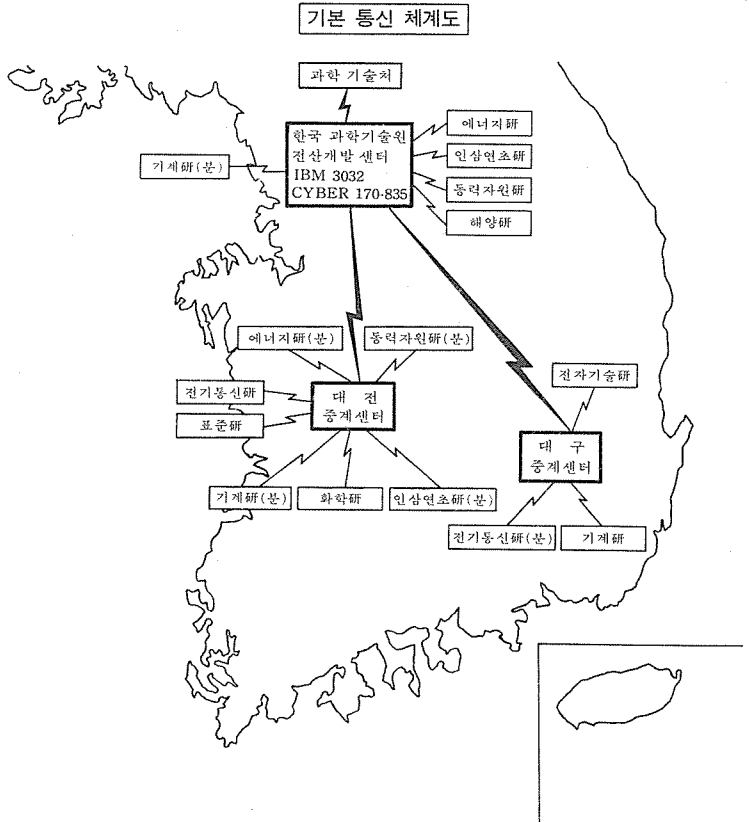
5월3일 科技處에 따르면 금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총2억 5천 만원을 들여 추진될 이 계획은 綜合행정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과학 기술행정을 전산화하고 科技處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전산개발센터의 대형컴퓨터인 IBM 3032 CYBER 170-835 통신망을 설치하여 산하 9개출연연구기관과 분소를 하나로 묶는 綜合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정보시스템은 컴퓨터와 데이터通信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행정조직内外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처리 저장하여 意思결정기능의 신속한 수행을 보장하는 정보를 산출할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인데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統合的개념의 電算化는 全無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과기처의 統合行政체계의 電算化시스템구축은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科技處는 이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기처내에 관리정보시스템운영협의회(위원장 金聖哲정보계획국장)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작년10월 과기처 전직원에게 電算教育을 실시한데 이어 금년에도 능률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관리정보시스템의 담당자와 전

전기통신연구소·한국표준연구소·한국화학연구소 및 한국기계연구소·한국동력자원연구소·한국에너지연구소가, 昌原지역은 대구를 중계센터로 하여 한국전자



직원을 대상으로 전산교육 및 入出力자료처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컴퓨터의 주요장비로는 K AIST전산개발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IBM 3032(용량 4BM)와 CYBER 170-835(용량 4MW)를 중앙 컴퓨터로 하여 서울지역에서는 K AIST전산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과기처·한국에너지연구소·한국인삼연초연구소·한국동력자원연구소·한국해양연구소 및 한국기계연구소(分所)가, 大德지역에서는 대전을 중계센터로 하여 한국

기술연구소·한국전기통신연구소(분소) 및 한국기계연구소가 연결되어 전국적인 Net Work를 구성하게 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따라 연구인력, 연구장비, 연구프로젝트의 Data Base를 구축함으로써 과학 기술정보를 수시로 검색할 수 있고 과기처 출연연구소 현황, 과기처 주요자료관리, 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및 예산 운영등을 완전 전산화함으로써 모든 관계기관 행정업무의 능률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高級 과학기술인력 양성시급

「技術開發 투자 촉진에 관한」 심포지움

科總 · 全經聯 · 産技協 공동주최



政府가 마련한 技術開發 投資 促進法律案에 대한 各계의 立場과 의견을 듣는 심포지움이 5월 1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대회 의실에서 과학·기술계, 산업·경제 계인사 4백여명이 참석하 가운데 열렸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全國經濟人聯合會,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 등 3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 심포지움에서는 金容勳 과 기처차관의 法律案의 立案배경 및 주요내용에 관한 기초연설을 들은 후 5명의 연사들이 관련 분야 별로 주제발표를 했다.

李揆行한국경제신문 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經濟學界에서 白永勳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이 「기술개발 촉진의 방향과 지원정책」, 科學界에서 趙炳夏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기초과학 기술과 기술개발투자」, 産業界에서 金球謙 쌍용양회공업사장이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경쟁력」, 言論界에서 趙선일보금싸는설위원이 「투자재원 조달과 연구개발투자」, 技術界에서 金基衡국제대학장이 「인력개발과 연구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技術開發促進 방향과 지원정책
白永勳<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기본명제는 技術革新을 토대로 産業體質을 강화하고 技術高度化를 주축으로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혁신하고 開放체제 로의 충실한 대응능력을 배

양하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조성되는 技術開發特別 基金의 운용관리와 관련, 효율적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 民間共同研究체제의 확립 ▲ 기술 수요개발에 관한 官民協助체제의 강화 ▲ 産業體중심의 「워크·팀」에 의한 연구시스템과 조직력 배양 ▲ 民間부문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租稅지원혜택 확대 ▲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技術行政 體制의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체제하의 경제발전은 實物資產의 축적력이 가장 문제가 된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기술축적을 위한 반복연구와 인력을 포함하는 技術산업의 축적능력을 자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研究開發투자와 企業경쟁력
金球謙<쌍용양회공업(주)사장>

技術開發投資 촉진을 위한 법률안이 기존법령과 다른 점은 技術開發特別 基金의 설치, 운용을 통하여 技術개발의 직접지원이 가능한 점이다. 따라서 이 基金의 조성과 운영은 향후 우리나라의 技術개발과 이를 통한 企業합리화,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먼저 基金조성에 있어 정부(정부투자기업 포함)는 최소한 정부출연금의 규모와 출연시기를 中長期財政운용계획에 반영, 자금 운영에 일관성과 계획성이 있어야 겠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있어

서는 상품화가 어려운 첨단산업 기술과 기초기술은 정부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산업현장 기술과 응용기술은 기업을 지원하여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며 융자조건도 기술개발투자의 특성을 감안, 일본개발은행의 同種資金 융자조건(이자율: 연 7.3%~8.9%, 융자기간: 10~15년)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자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연구도중 자금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며, 고급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 해외연수비의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기술개발투자 조정심의회 구성에 있어 民間主導로 이끌어 가도록 하여 기금이 현실성있게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제정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투자의 주체인 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업인도 기술개발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投資財源조달과 연구개발투자
金成斗 <조선일보 논설위원>**

과학기술의 변혁의 시대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는 이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政府가 제창하고 있는 거국적인 技術開發體制의 구축에 대한 공명을 아끼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대한 資金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과

학·기술의 진흥은 거대한 자금배정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기술한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금조성이 시급한 문제이다.

매마침 정부는 原油價인하분을 국내油價에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 여유분의 활용방안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그 상당부분을 安定基金이나 財政자금으로 흡수, 활용한다는 것이 기정법칙이라면 거기에서 科學技術 진흥을 위한 財源을 염출하는데 큰 용단을 내려보지 못한다.

치열한 기술경쟁을 치뤄나가려면 고급과학도사와 기술인력의 양성 확보가 시급하다. 고급기술인력의 양성·확보는 民間업체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선진각국도 기초연구부문과 고급기술인력의 양성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科技處는 지난해 마지막 기술진흥확대회의에서 「기술약진전략」 등 기술혁신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科技處의 방안이 아무리 절실하며 효과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행을 담당할 부처는 과기처가 아니다. 따라서 거국적인 기술개발체제의 구축이란 먼저 전체적인 정부조직자체가 기술주도적인 성격으로 재 편성 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루칼러를 알잡아보는 국민의 사고방식개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각에서 기술혁명의 시대를 이겨낼 슬기로운 실질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人力개발과 研究개발
金基衡 <국제대학장>**

우리 국가목표인 선진조국창조를 위해 人類의 무한한 욕망에 대응하는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은 불

가피하며 모든 산업과 기술이 미래지향적으로 정부와 기업과 온 국민의 技術人化·經濟人化 하는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先進化를 위해서 제일 기본은 人力開發이다. 첨단기술산업, 전자공업, 정밀기계공업 등을 주축으로 하는 선진국 공업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물에 못지않게 質이 강조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은 장기간에 고도의 충실한 학교교육과 현장훈련을 필요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치열한 선진국과의 경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국가적·산업적·교육적·기업체제의 정돈이 있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솔선하여 기술투자를 세계적수준으로 올리며 人力開發과 연구개발촉진에 앞장선다면 우리가 60~70년대에 달성한 제1 경제도약에 못지않은 제2 경제도약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에 과기처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인력개발과 연구개발촉진에 起爆劑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기금의 규모를 늘려야 하며 기술지원용의 기부금에 대한 損金처리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핵심 전략 첨단기술분야에 한하여 투자비율을 주무장관이 증가조절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혁신은 우수한 인력을 질적·양적으로 확보하여 기술자가 존중되고 기술축적이 되는 연구분위기속에서 불요불굴의 집념을 가지고 추구하여야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천시의 學制나, 사회풍토와 제도를 일소하여 창조와 과학하는 의식혁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學事·研究業務 一元化

KAIST, 數物學部등 8개學部로 개편



韓國科學技術院(원장 林寬)은 5월4일 理事會를 열고 지금까지 學事부와 研究部로 이원화되었던 機構를 統合, 연구와 학사업무를 一元化시켜 8개學部로 대폭 개편하는 機構改編案을 승인했다.

이번 기구개편안은 서구의 「매트릭스시스템」제를 도입, 지금까지 분리, 운영해 온 학사부와 연구부를 연결시켜 教育和 研究를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한 것이다.

개편된 기구는 數物學部를 비롯 화학부, 생물학부, 화학공학부, 재료공학부, 기계공학부, 전자공학부, 산업공학부등 8개 학부를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는 2개부처(행정처와 수확처)와 연구개발실, 해외 협력실, 공업기술지원센터로 편성되는 연구조정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도서관을 과학도서관으로 확대개편하여 기술정보실과 도서관을 두도록 했으며 KAIST 附設 전산개발센터와 海洋연구소는 그대로 존속시켰다.

지난 81년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통합해 출범한 韓

國科學技術院은 그동안 物理學등 4개기초과학학과로 편성된 理學部와 機械工學등 10개공학분야학과 및 3개 전문석사과정으로 편성된 工學部등 전문 석·박사만을 배출하는 學事부와 과학기술 및 산업에 관한 중장기 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연구본부로 구성되어 운영돼 왔다.

91년까지 박사1만명 확보
KAIST, 86년부터 英才教育도

韓國科學技術院은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理論과 실제적인 應用力을 겸비한 수준 높은 高級 科學技術人力 양성 확대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KAIST는 先進과학기술 立國에 필요한 지도적 과학기술인재의 수요급증에 따라 오는 91년까지 博士급과학자 1만명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體制를 박사과정 중심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연구원 학생과정입학대상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대학 및 산업체 연구업무 종사자까지도 확대 모집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해서는 국제 과학경쟁에 적응할 고급 과학인재의 양성이 시급하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창조적인 연구개발제도를 확립, 英才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英才교육은 오는 86년부터 고교과정과 학부과정으로 나누어 각각 160명의 학생을 선발해 실시할 계획이다.

科學·技術·技能人士총람

KIET, 在美科協에 발간의뢰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KIET·원장 司空壹)은 국내企業의 技術향상을 위한 자문 일선등 기업의 對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在美한국인 科學·技術·技能人士총람」을 펴내기로 하고 이에 따른 발간작업을 在美科協(KSEA·회장 姜慶植)에 의뢰했다.

司空壹원장은 姜慶植 재미과학기술회장과 지난 4월22일 KIET원장실에서 이에따른 用役事業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내로 총람을 발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在美科協은 한국인 고급두뇌의 소재를 파악, 전공별 학위별 조사통계를 내용으로하는 1차보고서를 5월말까지 KIET에 제출하고 10월 말까지는 데이터베이스로 磁氣테이프에 수록하며 총람발간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특별강연회 開催

菌學會, 倉田浩박사 초청

韓國菌學會(회장 金鍾協)는 5월18일 서울대학교에서 日本국립위생연구소 미생물연구부장인 倉田浩박사를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倉田浩박사는 「곰팡이 독소와 간암에 대하여」 강연했다.

WFEO 제 9 차總會 開催

오는 10월10~12일,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國際과학기술民間기구인 世界工學團體聯合會(WFEO : World Federation Engineering Organizations) 제 9 차 총회가 오는 10월 10~12일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학자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이번 총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79개 국가회원과 6개 국제 과학 기술기구 및 1개 지역기구회원등이 참가한다.

한편 총회에 이어 13~14일 2일동안 국제학술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서는 「신기술의 지식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보의 보

급」 「도시 및 농촌개발을 위한 공학자와 기술자의 역할」 「자체기술의 개발」 「공학자와 자연토양 및 수자원의 보존」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재생에너지 : 목재, 태양에너지, 생물자원」 등 5개 주제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이 WFEO는 1968년에 창립된 국제과학기술민간 단체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제 및 국가기술단체의 장려 육성 ▲기술자 및 기술단체의 협력촉진 ▲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정보교환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 기술자간의 유대강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비롯 KAIST 정밀기계기술실 연구진이 「NC 및 관련기술의 동향」 「Robot의 현황과 전망」 「Robot의 위치제어」 등 전반에 걸쳐서 강의를 했다.

새희장에 兪興鎭씨

서울國際사이언스클럽

과학기술자들의 親睦團體인 서울국제사이언스클럽은 지난 4월 21일 백남빌딩 19층 밴캣트룸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희장에 兪興鎭(美進物産사장) 씨를, 이사장에는 李德基(영남방직감사) 씨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南基棟·權弼周·宋升胤씨를 부회장으로, 崔錫煥·崔致榮씨를 감사로 선출했다.

産業技術情報 워크숍 開幕

KIET, 國家間 협력방안 모색

韓國産業經濟技術연구원(KIET 원장 司空壹)과 아시아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11개국 공동주최하는 産業技術情報국제워크숍이 5월 2일 KIET 대회의실에서 개막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일본, 호주등 17개국의 정보관계자 50여명이 참가, 20일까지 세미나와 기술정보관리실무 교육을 갖고 각국의 정보활용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국가간 정보유통에 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科學技術處 人事

▲원자력국장 朴時烈 ▲주미대사관 과학관 洪載憲 ▲주일대사관 과학관 張基熙 ▲과기처근무 李鍾秀 <以上 5월 1일자>

極東 레이저학교 개설

科技院, 오는 7월 1~21일

韓國科學技術院(원장 林寬)은 아세안국가 및 태평양국가의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極東레이저學校」를 개설한다.

이 극동레이저학교에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5개국과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연안 9개국의 理工系학생과 산업계연구원이 초청되어 국내 연구원들과 함께 레이저에 관한 교육 및 기술협력 문제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레이저학교에는 과학기술원에서 李相洙박사, 趙炳夏박사, 金忠基박사, 崔相三박사 등이 참가하며 외국에서 AE 자이그만박

사(美스탠퍼드대), WT 웰포드박사(英런던대), H 웰더박사(서독막스플랑크연구소) 등 19명의 국내외 석학이 참석하게 된다.

自動化기술 세미나 開催

KAIST 精密機械기술실

韓國科學技術院(원장 林寬)精密機械技術室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인천소재 KAIST 정밀기계기술실에서 제 2회 自動化技術세미나를 개최했다.

機械工業 및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관련교사들에게 生産自動化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고이상의 관련교사와 기계공업 및 관계업계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NC공작기계와 산업용로봇트를 중심으로한 생산자동화기술이 강의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李奉珍부장을

韓國, 뉴욕國際發明展서 3連覇

大賞에 金善弘씨의 「자동차 제동 油路조절장치」

5월 8일부터 13일까지 美 뉴욕 스테틀러 힐튼호텔특별전시장에서 열린 제 7회 뉴욕국제발명 및 신제품 전시대회에서 우리나라는 大賞·1개, 準大賞 1개, 金賞 5개, 銀賞 3개, 銅賞 3개 등 총 13개의 상을 수상함으로써 지난 81년(5회), 82년(6회)에 이어 또다시 종합우승, 3連覇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영국, 스위스, 서독 등 26개국에서 우수발명품 4백 17점이 출품됐는데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 7개 부문에 30점을 출품, 이 가운데 13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金善弘씨는 「자동차제동 油路조절장치」로 大賞을, 申錫均씨는 「라디오 인디안 밴드」로 準大賞을, 白容培씨 등 5명이 金賞, 裴啓煥씨 등 3명이 銀

賞, 俞炳彦씨 등 3명이 銅賞을 차지했는데, 이 전시회의 한국인 수상자와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大賞=金善弘(자동차제동 油路조절장치)

◇準大賞=申錫均(라디오 인디안 밴드)

◇金賞=白容培(신발내부 위생 처리방법), 安有鎬(요철형 끈 결합부를 가진 신발), 柳錫鎬(튀김 닭의 가공방법), 曹彦鎬(PRC 텔레비전 콘버터), 元仁浩(만능전 자키)

◇銀賞=裴啓煥(버튼식 패해정구)·元仁浩(자동차배기가스 정화장치)·李秀亮(쌍서형논스톱입체교차로)

◇銅賞=俞炳彦(체중조절을 위한 보행대), 李幸勇(3줄슬라이더 패스너-3줄 지퍼), 李熙東(불멸성잉크의 제조방법)

鐵鋼賞 시상키로

鐵鋼協, 3개 부문에 걸쳐

韓國鐵鋼協會(회장 朴泰俊)는 우리나라 鐵鋼技術人들의 創意와 研究開發의욕을 진작 시킴으로써 철강기술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鐵鋼賞을 제정, 기술상·기능상·장려상 등 3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기로 했다.

이 철강상은 철강공업분야에서 ▲신기술개발 ▲신제품개발 및 품질개선 ▲설비 및 공정개선 ▲원료 및 에너지 효율성증진 ▲작업개선 ▲기타 주요 기술개발 등의

성과가 탁월하여 철강공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시상하게 된다.

특히 철강기술상은 철강기술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 및 공정 등의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공적, 철강기능상은 철강기능분야에 있어서 제조, 운전, 정비 등 생산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공적에 대하여 시상하게 된다.

철강기술상은 상패 및 상금 2백만원, 철강기능상은 상패 및 상금 1백만원, 장려상은 상패 및

상금 5십만원이 수여되며 특히 기술상 및 기능상 수상자의 자녀 1명에 대해서는 국내대학 졸업 시까지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특전이 부여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를 비롯 공적조서, 공적기술서, 이력서 각 1통씩과 사진(3매), 피추천자의 업적 및 공적등의 증빙자료를 오는 12월31일까지 철강협회총무부(종로구 수송동 51-8 동진제강 빌딩 4층)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상식은 내년 2월에 열리는 철강협회 정기총회석상에서 있을 예정이다.

加壓輕水型原電技術

에너지研, 세미나 開催

韓國에너지연구소 原子力연구소는 美國웨스팅하우스社 전문가 16명을 초청, 5월 9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우리나라 原電의 主力機種인 “加壓輕水型 原子力발전소의 당면과제와 최신 기술”을 주제로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原電의 安全性 및 품질보증,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관리, 증기발생기 및 주급유펌프기술, 계측제어 기술, 수질관리기술, 방사성폐기물처리 운전, 보수유지기술등의 현안문제와 최신선진기술이 소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기발생기설계 * 생산보전 및 설계보증 * 구조공학 및 장비 * 계통공학 * 폐기물기술 및 시운전 * 원자로 냉각 펌프기술, 사업관리 * 고속증식로 * 원자력안전성 * 기술이전 * 증기발생기 프로그램 * 계측제어기술 * 가동중 발전소점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時代 열어

럭키, 자체기술개발로 量産체제 갖춰

반도체産業에 버금가는 새로운 尖端産業으로 급세기 材料革命을 이룩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산업이 국내에서 자체개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국내産業 발달에 신기원을 이룩했다.

(株)럭키(대표 具滋學)는 30여년간 플라스틱 가공 및 원료생산에 의해 축적된 기술로써 지난 79년 말부터 金屬보다 무게가 훨씬 가벼우며 가격이 저렴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산업용 플라스틱) 개발에 착수, 우수한 품질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소재 제품을 量産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갖추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産業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 럭키는 5월부터 이미 개발한 PBT계(상품명 LUPOX), PET계(상품명 LUPE T), Polyole계(상품명: LUPEN) ABS계(상품명: LUPOS) 및 SAN계(상품명: LUPAN) 등 45품종을 다양한 등급으로 공급하는 한편 개발중인 Nylon계(상품명: LUPON) 및 고분자 Alloy계 등 20여종도 곧 생산, 출하할 예정이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자체원료인 수지가 내마모성, 자기윤활성, 내약품성, 내열성을 지니고 있는데 유리섬유, 석면, 카본화이버 등의 보강제를 첨가하면 내열성, 인장강도 및 충격강도가 향상되는 한편, 각종 미네랄의 충전제를 첨가할 경우 가공성 표면성질 치수안정성등을 높일수 있는데 특히 각종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더욱 강한 다성 물

성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특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미국, 서독 일본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극비의 제조기술로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개발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종류는 폴리아미드 즉 나일론 계열, 폴리카보네이트계열, 변성폴리페닐렌 옥사이드계열, 폴리에스테르계열 등 10여계열이 있으며 이 계열에서 파생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130여종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국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산업은 그동안 전무한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럭키의 본격적인 量産을 계기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는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기부품, 일용품 각종 스포츠 레저용품 및 잡화등의 급속한 신장이 예상되는 향후 4~5년 이내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글인쇄시스템 개발

IBM, 한글·영문 혼합 印刷

韓國 IBM(代表 렛슬H. 블리지)은 최근 레이저광선을 이용한 電子사진기술에 의해 1인치당 240 Dot의 高解像度를 갖춘 비충격식(Non-Impact)인쇄 방식을 사용한 획기적인 한글인쇄시스템인 「IBM 3200 인쇄서브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크기가 다른 3종류의 한글 明朝體 각 2,354 자씩과 영문 기호등을 포함하여 기억용량은 모두 8,140자이다.

이 「IBM 3200」은 레이저 走査 방식을 이용해 데이터의 각종 문자와 서식 Over lay로 인쇄페이지를 형성하고 전자사진 Process에 의해 인쇄를 하는데 인쇄 속도는 1분당 2,000행의 속도(용지길이 11인치인 경우)로서 글자의 크기에 따라 총 26만자에서 31만자까지의 한글, 영문, 기호등을 다양한 크기로 혼합인쇄해 준다.

이 인쇄시스템은 또한 업서와 같이 두꺼운용지로 부터 대형帳票(16인치+14인치)에 이르기까지의 각종서류에 형서는 물론 종서로도 인쇄가 가능하며 각 용지마다 인쇄데이터의 변경 또는 삭제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인쇄면수도 임의 지정할 수 있게되어 있다.

이러한 IBM 3200은 IBM 4331 4341 Processor 시스템, 3031, 3032 3033, 3083 Processor와 시스템 370 155-168 등의 모델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레이저 新素子 등장

美벨研서 개발

美國 ATT社의 子會社인 벨 연구소는 싱글모드의 長波長 대용량 전송 光通信 시스템에서 불가결한 安定한 光波를 발진하는 한편 스 위칭 효과를 가진 획기적인 레이저素子 實用化에 성공했다.

光應用 물리학술지인 「applied physics leertes」誌에 의하면 C₂ 레이저라 불리는 이素子는 이미 벨 연구소와 달성한 세계 最長(1백 19km)의 無中繼 대용량 전송 실험(파장 1.5~1.6 마이크로, 전송용량 4백 20메거비트)에 사용했으며 앞으로는 스 위칭 효과를 통해 光論 理소자로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學會動靜

大韓土木學會

大韓土木學會는 4월30일 대한 체육회강당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회장에 金東漢씨(한양엔지니어링고문)를 선출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또 부회장 3인 가운데 丁明植(포항종합제철수석부사장) 鄭然世(해운항만청차장)씨등 2명은 유임시키고 李石贊씨(한양공대교수)를 새로 선임하는 한편 감사 3인과 이사 6인을 새로 선출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학회발전에 공헌한 金亨洙씨(전남대공대교수)등 2명에게 공로상, 李舜鐸씨(영남대교수)등 2명에게 학술상, 金周元씨(한국포장건설기술이사)등 4명에게 기술상, 張丞弼씨(서울공대교수)등 2명에게는 논문상이 수여됐다.

한편 총회에 앞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는 「한국경제전진의 所望性과 可能性」金鎭炫(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건설업의 현황/權奇泰(현대건설부사장)」등이 강연됐다.

韓國高分子學會

韓國高分子學會(회장 鄭基現)는 美뉴욕대학의 한창대박사를 초청, 高分子가공에 관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5월16~17일 2일간 한국과학기술원 존슨강당에서 열린 이번 특별세미나에서 한창대박사는 「Coextrusion of Thermoplastic Polymers」 「Rheological and Curing Behavior of Thermosetting

Resins」 「Rheology - Processing - Property - Morphology Relationships in Heterogeneous Polymer Blends」 등 3편의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밖에도 한국과학기술원의 김광용씨, 서울대 조원호씨, 한국과학기술원 김성철씨 등 3명이 주제발표를 했다.

韓國化學工學會

韓國化學工學會는 5월 8일 롯데 호텔에서 1983년도 춘계총회를 열고 새회장에 尹錫榮(동서석유사장)씨, 부회장에 이한주(연세대교수)·장홍규(호남에틸렌부사장)·정우철(전북대교수)씨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또 감사 2인과 이사 6명을 개선하고 1982년도 결산을 승인했다.

韓國金屬表面工學會

韓國金屬表面工學會(회장 文仁炯)는 5월14일 대구 금오공과대학 시청각교실에서 1983년도 춘계 학술강연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강연회에서는 고려대 윤동석교수의 「고대 한국철기 유물의 금속학적 고찰」에 관한 특별강연과 태양금속(주) 권정식씨의 「프린트기판 도금에 관하여」라는 산학강연이 있었으며 연구발표회에서는 「크롬 카바이드의 고온산화에 관한 연구」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편 동학회는 학술발표회에 앞서 금성반도체 구미공장 견학도 있었다.

韓國 펄프·종이工學會

韓國 펄프·종이工學會(회장 田豐鎭)는 4월29일 임업시험장 회의실에서 1983년도 정기총회 및

제2회 펄프·종이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회무보고에 이어 1982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을 승인하는 한편 198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통과시키고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한 회원 4명에게 기념패를 수여했다.

한편 펄프·종이기술 세미나에서는 「기업인이 보는 국내製紙技術과 製紙工業의 당면문제점」 「알칼리펄프화에 있어서의 炭水化合物과 리그닌분해에 대한 쾨논의 영향」 「재래식화학펄프화와 有機溶媒펄프화의 동력학적 비교연구」 등 3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韓國科學著述人協會

韓國科學著述人協會(회장 金貞欽)는 4월26일 출판회관 강당에서 「첨단과학기술에의 도전」이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한국과학재단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첨단 기술개발 전략/趙庚穆(과학기술처심의실장)」 「醫學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문제/孟光鎬(가톨릭의대교수)」 「첨단기술과 산업에의 활로/金永佑(산업기술진흥협회부회장)」 「세계첨단기술의 흐름/姜信龜(경향신문)」 등 4편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韓國太陽에너지學會

韓國太陽에너지학회(회장 車宗熙)는 5월21일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서울사무소에서 1983년도春季太陽에너지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조선대 공대 김병철씨의 「Solar Thermal Storage를 위한 열교환성능의 실험적연구」 등 5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韓國通信學會

世界通信의 해(WCY '83) 紀念 「Data 通信 Workshop」이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렸다.

韓國通信學會 주최, 逡信部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데이터통신의 한국적수용태세를 정립하는 한편 Telematics 사회에 있어서의 데이터통신의 정책과 경영전략 수립의 기본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吳明澈신부차관의 「情報化사회의 기반구조와 데이터통신」이라는 特別講演에 이어 20명의 연사가 주제 발표를 한 뒤 「Telematics와 Data 통신」을 주제로 한 종합토의로 진행 됐다



데이 워크숍에서 다루어진 주요 연제는 다음과 같다.

- * 데이터통신 서어비스... 이 용태(DACOM 사장)
- * 데이터 전송기술... 조성준(항공대교수)
- * 텔리마틱 서비스를 위한 터미

- 날기술...강철희 (KETRI 실장)
- * 한국의 데이터통신 정책방향...고용갑(MOC 통신정책국 사업관리과장)
- * 국제 데이터서비스網의 구성과 액세스 방법...유경희(DACOM 통신사업본부장)

科總 회원단체 7월중학술행사 일정

| 학 회 명 | 대 표 자 | 행 사 명 | 일 자 | 장 소 |
|----------|-------|----------------|---------|------------|
| 한국품질관리학회 | 황 의 철 | 제 3 차 학술연구발표회 | 7. 8 | 공업표준협회강당 |
| 한국생약학회 | 박 재 주 | 하계학술대회 | 7.13-14 | 부산 |
| 한국축산학회 | 송 계 원 | 학술발표회 및 총회 | 7.15-16 | 제주대학교 |
| 한국농화학회 | 홍 중 욱 |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 7.15 | |
| 한국균학회 | 김 중 협 | 하계학술대회 | 7.16 | 서울 |
| 한국고분자학회 | 정 기 현 | 고분자토론회 | 7.21-23 | 경주 코오롱호텔 |
| 대한약학회 | 이 상 섭 | 하계강습회 | 7.21-23 | 대한약품공업협회 |
| 한국고무학회 | 이 덕 표 | 제14회 하계고무기술세미나 | 7.21-23 | |
| 대한전자공학회 | 이 정 한 | 하계종합학술대회 | 7.21-22 | 대덕 |
| 대한전기학회 | 지 철 근 | 하계학술회의 | 7.22 | 경남대 (마산) |
| 대한기계학회 | 서 정 일 | 학술강연회 | 7.23 | 한국과학기술원 |
| 한국동물학회 | 이 택 준 | 해외과학자 초청 학술대회 | 7.23 | 서울대 |
| 한국영양식량학회 | 이 성 우 | 영양식량 심포지움 | 7.29-30 | |
| 한국생태학회 | 임 형 빈 | 워크숍 | 7.27-28 | 소백산 |
| 한국음향학회 | 차 일 환 | 하계음향학술발표회 | 7.30 | 연세대 장기원기념관 |
| 한국임학회 | 박 태 식 | 하계총회 및 학술연구발표회 | 7.30-31 | 충남대 |
| 한국화학공학회 | 윤 석 영 | 하계심포지움 | 7월말 | |
| 대한광산지질학회 | 김 욱 준 | 특별세미나 | 7. | |
| 한국섬유공학회 | 이 재 곤 | 섬유공학강좌 | 7. | |
| 대한간호학회 | 하 영 수 | 모아간호분과학회 학술회 | 7. | 이화여자대학교 |
| 대한생화학회 | 채 범 석 | 하계학술강연회 | 7월말 | 가톨릭의대 |
| 한국체육학회 | 김 진 원 | 하계세미나 | 7. | |

大韓建築學會

大韓建築學會 1983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가 4월30일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회발전에 공이 큰 윤장섭교수(서울대공대)에게 공로상, 이창갑씨(충남대교수)에게 학술상, 이상순씨(롯데건설 사장)에게 기술상, 박춘명씨(박춘명설계사무소)에게 작품상을 수여했다.

이날 총회는 또 8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승인하고 83년도 사업계획과 2억5천7백만원 규모의 금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한편 정관 일부를 개정했으며 理事 14명 가운데 4명을 개선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는 朴贊茂교수(명지대)의 「건축도시계획 방법론」, 金文鉉씨(한국과학기술원)의 「電算補助 건축설계의 현황」등 8편의 강연이 있었으며 학술논문발표회에서는 「都市무허가 정착지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김현철(서울대 대학원)」등 31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大韓獸醫學會

大韓獸醫學會(회장 林昌亨) 1983년도 춘계세미나가 5월14일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實驗動物醫學」을 주제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實驗동물의 유전적콘트롤 / 近藤恭司(名古屋대학 명예교수)」 「실험동물 질병의 모니터링 / 藤原公策(동경대교수)」 「암 연구에 있어서의 실험동물이용 / 尹鐸求(원자력병원장)」 「실험동물 분야의 현황과 전망 / 崔在潤(국립보건원 동물관리과장)」 「독성시험과 실험동물 / 李榮純(서울대 조교

수)」 「우리나라의 SPF 家禽에 관하여 / 吳璵祿(千戶孵化場상무)」 등 6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大韓機械學會

大韓機械學會(회장 徐延一)는 5월14~15일 양일간 한국해대대학 강당 및 한바다호(해양대 寶習船)에서 1983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견학회를 개최했다.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한국해운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국해양대학학장인 辛致教박사의 특별강연에 이어 「異性材料의 마찰용접시 발생하는 온도분포에 대한 연구」 등 60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大韓알레르기學會

大韓알레르기學會(회장 康晰榮)는 5월27일 대구 동인호텔에서 제1회 韓·日합동알레르기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日本獨協醫大 알레르기內科 牧野교수의 「기관지 천식과 예방요법」에 관한 특별강연에 이어 日本측에서 국립相模原병원 清水章治醫長, 古河日光 종합병원 小泉一弘원장등 5명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의대 내과 文熙範씨, 경북대의대 金能守교수등 6명이 주제발표를 했다.

大韓電子工學會

大韓電子工學會(회장 李晷漢)는 5월13일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1983년도 計測制御, 回路 및 시스템, 醫用電子 및 生體工學 연구회 합동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학술발표회는 尹明重박사(한국과학기술원교수)의 「V

SCF Electrical Power Generating System」이라는 특별강연에 이어 각부문연구회별 학술발표가 있었는데 計測制御연구회에서는 「Action Potential 시스템식별에 관한 연구/서병설(한양대)」 등 5편, 醫用電子 및 生體工學연구회는 「해정진기를 이용한 좌심실 기능측정에 관한 연구/김영호외 3인(서울대)」 등 8편, 回路 및 시스템연구회는 「정보반복전송시스템 / 이석우(금성사)」 등 13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韓國遺傳學會

韓國遺傳學會(회장 李熙明)는 5월21일 전남대학교에서 제3회 춘계심포지움을 개최했다.

「遺傳工學研究의 최근동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日本 Suntory 연구소 Nakazato박사의 「Genetic Engineering for the Production of Physiologically Active Peptides」라는 특별강연과 전남대 김기원 교수의 「유전공학의 현황과 전망」 등 6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었다.

大韓循環器學會

大韓循環器學會(회장 金三壽)는 4월30일 부산 서라벌호텔에서 1983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고혈압 연구의 최근동향이라는 주제로 내분비학적 측면, 신장학적 측면, 본태성고혈압의 병인론적 측면, 우리나라 고혈압연구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연수강좌에서는 「심장질환의 최근 치료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